제6장 매사를 삼가고 엄숙하게 하라

도 입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을 관찰하면 특히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잘 놀아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전의 엄숙한 아버지의 모습에 비해 좋은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른께 버릇이 없거나 실수해도 귀엽게 봐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키우면 아이가 자라서 부모를 마치 자기 친구처럼 함부로 대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의(義)를 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물론 이렇게 자란 아이들 모두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아무리 친한 부부나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친압(親狎 : 격의 없이 너무 가깝게 지냄)하는 것이 있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 그 의를 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반면 사람이란 습관의 노예가 되기 쉬워서 격의 없이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엄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집안에서 부모가 취하는 엄숙함은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필요한 일이다.

율곡 선생이 이 장에서 말하는 주제는 원래 근엄(謹嚴)이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부부사이의 내외를 엄격하게 하여 몸을 조심하고 삼가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다소 불필요하므로 하나만 소개한 뒤 생략하고 여기서는 가정을 다스리는 엄숙함만 소개한다.

본 문

[율곡의 풀이]

윤리를 바르게 하고 은혜와 의리를 돈독히 하는 것은 앞의 4장에 걸쳐 그 대강을 말하였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삼가고 엄숙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그래서 삼가고 엄숙하게 하는 문제를 그 다음의 순서에 넣었다.

[예기]

예(禮)는 부부사이를 조심하는 데서 시작된다. 집을 짓되 안채와 바깥채를 구분하여 남자는 바깥채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채에 거처하되, 안채는 깊숙한 곳에 짓고 문을 굳게 닫아서 문지기가 지켜서 남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자는 나오지 못하게 한다.

〈주석〉 진씨(陳氏)가 말하였다.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다.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인륜이 문란해진다. 그러므로 예는 부부사이를 조심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주역]

집안사람들이 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막는다면,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주석〉 정자(程子)가 말하였다. "집안을 다스리는 자가 진심으로 법도를 가지고서 분수에 벗어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내지 않는다면, 사람의 감정은 곧 죄를 짓는 데로 흘러서, 반드시 후회하거나 한탄하게 되는 것이다.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질서를 상실하거나,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분별을 문란하게 하거나, 은혜를 손상하게 되거나, 윤리를 해치게 되어, 혼란이 이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을 것이다. 법도로써 분수에 어긋나는 일을 잘 막아낸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니, 후회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

사람이란 자기가 사랑하여도 치우치게 되고, 자기가 미워하여도 치우치게 되며, 자기가 두려워하거나 공경하여도 치우치게 되고, 자기가 슬퍼하거나 가엾게 여겨도 치우치게 되며, 자기가 오만하게 굴거나 게을러도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아하면서도 그 나쁜 점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그 좋은 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흔하지 않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이런 다섯 가지는 사람에게 있어 그 본래부터 당연한 법칙이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심정이란 오직 그 향하는 바에 따를 뿐이고, 살펴보는 일을 더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신의 몸을 닦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대학]

속담에 "사람이란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을 알지 못하고, 자기 논의 벼가 자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사랑에 빠진 자는 밝지 못하고, 얻기를 탐내는 자는 싫어하는 것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치우쳐서 해가 되는 것이니, 집안이 가지런히 다스려지지 못하는 까닭이 된다."

[논어]

공자가 말하였다. "오직 여자와 소인은 가르치기 어려우니 가까이 하면 불손하고 멀리하면 원망한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소인은 노예(노비)나 하인이다. 군자는 처와 첩에 대해서 엄숙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기르면 이 두 가지 폐단이 없을 것이다."

[서경]

나라가 잘 다스려지거나 어지러워지는 일은 오직 여러 공직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공직은 개인적으로 친밀한 자에게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오직 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지위는 악덕한 무리에게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오직 어질고 덕 있는 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주석〉 채씨(蔡氏)가 말하였다. "오직 현명하고 오직 유능한 이를 선발하는 것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길이고, 사사로이 친밀하거나 악덕한 이를 선발하는 것은 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길이다."

[율곡의 풀이]

삼가고 엄숙하게 하는 이 장에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대개 안팎(내외)을 분별하고 예법으로서 막으면 남녀가 바름을 얻고, 밝고 공정한 것으로 엄숙하게 하면 호오(好惡)가 이치에 합당하게 된다.

해 설

율곡 선생이 이 장에서 주로 말하는 것은 왕이 자기 가문의 어른으로서 기강을 바로잡고 은혜를 베푸는 문제에서 삼가고 엄숙해야 함을 다루고 있다. 왕에게 있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문제는 곧 나라의 일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기』와 그 내용이 들어간 『소학』에 나오는 말을 위주로 부부간의 분별을 엄격히 하여 남녀 사이의 음란한 문제를 예방하고, 처와 첩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외척과 환관을 대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언급하고 있다. 윤리를 바로잡고 은혜를 베풀더라도 삼가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현대의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별로 관계가 없다. 그렇더라도 소시민적 삶을 사는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전혀 없을까? 앞의 도입부문에서 시사했듯이 보통의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옛말의 "손자를 너무 예뻐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아당긴다."는 말도 본문의 공자의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자식이나 또 가까운 사람 누구든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미성년일 경우 너무 잘 대해주면 버릇이 없어지거나 방자해질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율곡 선생의 이 엄숙하게 하는 것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이라 하더라도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비단 가정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상사로서 학교의 스승이나 사회의 선배로서 필요한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쉽게 치우칠 수 있다. 본문 『대학』의 말도 이점을 우려한 것이다. 아무튼 가정 내에서 자녀와 친하기만 하고 잘못에 대한 엄격한 질책이 없을 경우, 적어도 가정 내에서는 정의와 평등을 제대로 배울 기회를 상실할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예전 사람들이 가정에서 법도를 강조했다면, 지금 사람들은 가정에서 법도를 강조하기보다는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각각의 장단점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2. 본문 『대학』에서 말하는 속담에 "사람이란 자기 자식의 악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논의 벼가 자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사람이 욕심에 빠지기 쉬워서 자신 자식은 좋게 보이므로 나쁜 점을 알지 못하고, 자기 논의 벼는 작게 보이고 남의 논의 벼는 크게 보인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 경험에서 찾아 말해봅시다.

3. 지도자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여 일을 그르친 경우를 역사적 사실 가운데서 찾아보자.

4. 『논어』에서 공자는 "오직 여자와 소인은 가르치기 어려우니 가까이 하면 불손하고 멀리하면 원망한다."라고 하였다. 공자가 살았던 당시와 지금은 사회적 배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공자의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공자의 이 말에는 일정한 보편적 논리를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공자가 말하는 '여자'와 '소인'을 오늘날 입장에서 말한다면 누가 거기에 해당할까?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언 유 지 왈 인 막 지 기 자 지 악 막 지 기 묘 지 석
諺有之曰 人莫知其子之惡하고 莫知其苗之碩이라 하니라(『대학』).

한자 풀이와 해설

諺 : 속담/有 : 있다/之 : 대명사/曰 : 말하다/人 : 사람/莫 : 없다/知 : 알다/其 : 그/子 : 자식/惡 : 악하다, 악행/苗 : 어린 벼, 싹/碩 : 크다

*莫 : ~하지 못하다의 부정사로 쓰임

*其 : 대명사로 人을 받음

*莫知其苗之碩 : "자기 논의 벼가 자란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우리 속담과 유사하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막지기자지악(莫知其子之惡) : 부모 된 사람은 사랑이 지나쳐 자기 자식의 잘못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

해석

속담에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을 아는 사람이 없고, 자기 논의 벼가 자란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호 이 지 기 악 오 이 지 기 미 자 천 하 선 의
好而知其惡하고 惡而知其美者는 天下에 鮮矣라(『대학』).

한자 풀이와 해설

好 : 좋아하다/而 : 말을 잇는 접속사/其 : 그/惡 : 악하다, 악행, 미워하다/知 : 알다/美 : 아름답다, 좋다/者 : 사람/天 : 하늘/下 : 아래/鮮 : 드물다/矣 : 문장 끝에 오는 어조사

* 惡은 악(惡)으로 읽을 때는 악하다, 악행의 뜻이고 오(惡)로 읽을 때는 미워하다의 뜻

*여기서의 而는 앞뒤 문장의 반대되는 뜻을 이었다. ~하나, ~하면서도의 뜻

*주어는 '好而知其惡, 惡而知其美者'이고 술어는 鮮이다.

*~者 : ~하는 것, 여기서는 ~사람으로 쓰였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호이지기악(好而知其惡) : 좋아하면서도 그 사람의 옳지 못한 점을 안다는 말

해석

좋아하면서도 그 나쁜 점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그 좋은 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흔하지 않다.